한성대 글로벌 AI 경영컨설팅학과, 제1회 AI 아트 & 비즈니스 페스티벌 개막

베트남 유학생 등 다국적 인재와 국내 청년 혁신가 잇는 글로벌 AI 비즈니스 교류 플랫폼 첫선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글로벌 AI 경영컨설팅학과가 지난 24일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제1회 글로벌 AI 창작 및 비즈니스 Week'(2026 AI Art & Business Festival)의 개막식을 열었다. 오는 29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BM) 창출을 목표로 기획됐으며, 베트남 유학생을 비롯한 다국적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학과 차원의 첫 국제 교류 플랫폼이다.

정진택 한성대 대학원장은 개회사에서 "다국적 유학생과 국내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인재 교류 플랫폼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곽상언 국회의원, 이종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노규성 한국AI융합기술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청년 AI 인재 육성과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곽 의원은 축사에서 "청년 AI 사업화 주체를 발굴하고 AI 비즈니스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메인 강연은 박양수 아이쎄오(AI-CEO) 대표가 맡아, 행사가 종료되는 29일까지 AI 에이전트 리터러시와 노코드 자동화 프레임워크를 결합한 실전 비즈니스 전략을 전수한다. 한성대학교 측은 이번 행사를 출발점으로 향후 정기적인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주도문화협회, 하노이서 '서울 컬처 익스피리언스 데이' 개최

퍼니준 작가의 K-드링킹 컬처 일러스트 21점, 베트남 문화예술계에 한국 술문화를 전하다





한국주도문화협회 김완준(작가명 퍼니준) 회장이 지난 6월 6일 베트남 에코파크의 한 아트 갤러리에서 '서울 컬처 익스피리언스 데이'를 열고 한국의 술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의 예술교육가 쩐 민 지엠 항 대표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한인회 ACT 고대종 이사가 지원했다. 전시장에는 퍼니준의 대표작 'How to Drink Soju 10 Steps'를 비롯해 한국의 드링킹 컬처를 주제로 한 일러스트레이션 21점이 걸렸고, 관련 굿즈와 영상도 함께 소개됐다.

오프닝 행사에는 약 50명, 전시 기간 중에는 약 100여 명의 문화예술계·비즈니스 관계자가 방문했다. 하노이 한인회 이종형 대외협력본부장과 고대종 이사도 자리해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확인했다.

퍼니준은 '소주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저서 『How to Drink Soju Like a Korean』 영어판을 출간했고, KBS 제작·넷플릭스 공개 다큐멘터리 '소주 랩소디'에도 출연한 바 있다.